강원도의회 第255회 임시회
의원입법·정책 동향

섬기는 일하는 가까운 강원도의회

의 회 사 무 처
(수석전문위원실)

제255회 임시회(2016.5.11.~ 5.25.) 의안 처리 목록

위원회	의안명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본회의 (5. 25.) 처리결과
기획행정 위 원 회 (3건)	강원도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도지사	원안
	강원인재 육성재단 출연 동의안	도지사	원안
	2016년도 제5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도지사	원안
사회문화 위 원 회 (3건)	강원도 무인비행장치 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구자열 의원	원안
	강원도 문화재 보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도지사	원안
	강원도국제민속예술축전 지원 출연 동의안	도지사	원안
농림수산 위 원 회 (7건)	강원도 곤충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구자열 의원	수정
	강원도 지역 전통주 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장석삼 의원 강청룡 의원	원안
	강원도 쌀가공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안	한금석 의원	수정
	강원도 향토음식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진기엽 의원	원안

	강원도 환경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도지사	수정
	청정강원21실천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도지사	원안
	강원도 자연학습원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도지사	원안
경제건설 위 원 회 (2건)	강원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장석삼 의원	원안
	강원도 의료관광지원센터 설립 및 지원조례 폐지조례안	도지사	원안
교 육 위원회 (2건)	2016년도 제2차 수시분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교육감	원안
	2016년도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지방채 발행계획 변경 계획안	교육감	원안
예산결산 특 별 위 원 회	2016년도 제1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	도지사	수정
	2016년도 제1회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교육감	수정

제255회 임시회 의원발의 의안 내용소개

▣ 강원도 무인비행장치 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구자열 의원(기획행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원주4)

미래산업으로 부각되고 있는 무인비행장치 관련 산업의 강원도내 육성을 위한 조례안이 발의됐다. '강원도 무인비행장치 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은 무인비행장치의 제작 및 활용을 통한 서비스분야 까지를 관련 산업분야로 포괄하여 육성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조례안에서는 산업과 관련된 도지사의 책무로 무인비행장치 산업발전에 저해되는 규제의 개선과 함께 인적·물적 사고 및 안전사고에 대한 예방과 산업진흥의 기본목표와 방향, 인력의 양성, 기술개발·연구사업의 수립, 운용실험 등을 할 수 있는 장소의 제공 등에 대한 계획을 수립 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조례안을 발의한 구자열 의원은 "무인비행장치 관련 산업은 근래 택배, 산불감시 등 활용분야 및 기술의 괄목할 만한 성장으로 국가차원의 산업 활성화 방안이 모색되고 있는 분야로서 지난 2015년 12월 국토교통부의 「무인비행장치 안전성검증 시범사업」에 강원도 영월군이 시범사업 전용구역으로 지정되어 운영중"이라고 말하고 "이런 상황에서 무인비행장치 산업이 강원도의 경제발전에 큰 기여를 할 수 있는 분야라고 생각한다"고 조례안 발의 이유를 밝혔다.

▣ 강원도 곤충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구자열 의원(기획행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원주4)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곤충산업을 강원도의 신성장 동력으로 육성·지원하기 위한 '강원도 곤충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이 발의됐다. 조례안은 도지사가 곤충산업의 기반조성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해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세부실천계획을 연도별 시행계획과 연계하여 매년 수립·시행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이 계획에는 전문인력 양성, 인프라 구축 및 경영·기술지원, 기술개발·연구사업 수립, 곤충자원의 상품화 기술 개발, 유통·가공·판매 등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도록 하고 있다. 특히, 도지사가 강원도 곤충자원산업화 지원센터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여 곤충자원사업화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조직과 시설을 갖출수 있도록 했다. 구자열 의원은 "도내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통하여 곤충산업 발전과 농가 소득증대 등 지역 경제에 도움이 되고자 했다"고 조례안 발의 이유를 밝혔다.

▣ 강원도 지역 전통주 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 대표발의: 장석삼 의원(농림수산위원회, 새누리당 양양)
∎ 공동발의: 강청룡 의원(농림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춘천4)

장석삼 의원

강청룡 의원

강원도 지역 전통주 산업 육성과 소비 활성화를 위한 '강원도 지역 전통주 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이 발의됐다. 지역 전통주란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규정 된 술로써 강원도 내에 주된 사업소를 두고 생산·제조되는 술을 말한다. 조례안에서는 우선 도지사가 전통주 산업 육성과 소비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시장·군수의 추천을 받아 우수 전통주를 선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전통주의 소비촉진을 위해 강원도와 각 시·군에서 개최하는 각종 공식행사에서 전통주를 우선 이용하도록 노력하고 권장하도록 하고 있다. 조례안을 발의한 장석삼 의원은 "전통주는 우리 농산물로 만들어 오랫동안 계승·발전시켜 온 대표적인 전통문화 콘텐츠"라고 말하고 "전통주 산업 활성화를 통해 우리의 전통문화를 되살리고 농업의 부가가치 증진과 농산물의 수급안정 등에 기여하기 위해 조례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밝혔다.

▣ 강원도 쌀가공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안

한금석 의원(농림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철원2)

강원도 쌀의 새로운 수요개발과 쌀가공품의 품질향상 등을 지원하기 위한 '강원도 쌀가공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안'이 발의됐다. 쌀가공산업이란 도내에서 생산된 쌀을 원재료로 쌀가공품을 제조, 포장, 보관, 수송 또는 판매하는 사업을 말한다. 조례안에서는 도지사가 5년마다 쌀가공산업 활성화 지원에 대한 종합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였으며 쌀가공산업 시설 및 산업단지의 조성, 관련 산업 홍보, 연구·조사·교육, 품평회 및 경연대회 개최 등을 예산 범위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특히, 쌀가공품의 포장·규격출하 및 홍보·판매 등을 촉진하기 위하여 유통센터 또는 전문판매점을 설치 운영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조례안을 발의한 한금석 의원은 "정부 양곡재고가 2015년말 기준으로 적정 수준의 2배 이상인 190만 톤으로, 쌀 공급 과잉 문제가 심각한 상황"이라고 말하고 "쌀 가공식품 다양화 등을 통해 농업의 부가가치를 높이는 방안을 찾아야 할 시점이라고 판단했다"고 조례안 발의 이유를 밝혔다.

▣ 강원도 향토음식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진기엽 의원(농림수산위원회, 새누리당 횡성1)

강원도의 고유한 향토음식 계승 발전과 발굴 육성을 위한 '강원도 향토음식 육성 및 지원조례안'이 발의됐다. 향토음식이란 지역의 전통음식과 향토적인 원재료를 사용해 조리하는 음식을 말하는 것으로 조례안에는 지역 식자재와 식문화를 활용한 향토음식의 상품화를 위해 강원도지사가 농가맛집의 선정 등을 할 수 있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구체적으로 특성화된 향토음식을 육성·지원하기 위해 종합계획을 수립·시행 할 것과 향토음식 발굴·보전 등을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도지사는 관광 상품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개발·육성할 가치가 있는 농가맛집, 향토음식점과 이와 관련하여 전문성이 있는 사람을 향토음식 기능보유자로 선정할 수 있도록 했다. 조례안을 발의한 진기엽 의원은 "강원도 향토음식의 상품화로 지역농수산물 소비촉진 및 농어가 소득증대를 도모하고자 했다." 고 말하고 "향토음식과 향토음식 기능인을 강원도의 관광상품으로 발전시킬 전략의 필요성을 느껴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다" 고 밝혔다.

▣ 강원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장석삼 의원(농림수산위원회, 새누리당 양양)

「강원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관리 조례」에 대한 일부 개정 조례안이 발의됐다. 「강원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관리 조례」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지난 2011년 제정된 조례이다. 개정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서 자치단체장이 터미널사업을 경영하려는 자가 없을 경우 직접 터미널을 설치·운영 할 수 있으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에게 필요한 자금의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는 규정을 조례에 반영한 것이다. 조례안을 발의한 장석삼 의원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발전을 위해 터미널을 경영하려는 사업자가 없을 경우 시장·군수가 공영터미널을 설치할 때에 소요되는 경비 일부를 지원하기 위한 근거를 만들 필요성을 느꼈다" 말하고 "개정 조례안이 도내 각 시·군의 노후된 터미널 등의 시설 개선에 기여 할 수 있게 되길 바란다" 고 조례안 발의 이유를 밝혔다.

강원도의회 의원연구회 활동

▣ 강원도의회 생활정치 실천 연구회(회장 김동일 의원)

- 안전체험 행사 개최(2016. 5. 10.) -

‘강원도의회 생활정치 실천 연구회’는 5월 10일 '춘천 강원명진학교'를 방문하여 학생들과 함께 안전체험 행사를 진행했다.

이번 체험행사는 안전교육전문기관의 협조를 받아 강원명진학교 학생과 교직원 그리고 학부모들이 참여한 가운데 교통안전, 소방안전, 물놀이 안전등에 대한 교육과 체험을 진행하였다.

안전체험행사 후 연구회 회원을 비롯한 강원도의회 관계자들은 학교 측의 안내를 받아 교육시설 및 직업훈련 시설 등을 견학하였다. 참가자들은 특히 점자 도서관과 직업 훈련장 시설에 대해 높은 관심을 갖고 학교 관계자들과의 대화를 갖는 등 이번 방문을 특수학교 시설과 운영에 대해 이해를 높이는 계기로 삼고자 했다. 연구회 김동일 회장은 “이번 체험행사를 통해 안전사고에 특히 취약한 장애학생들을 대상으로 관련 지식을 습득하고 몸소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했다” 고 말하고 “장애학생들에 대한 행정적 지원에 앞서 현장에서 직접 만나서 교감하는 기회를 갖기 위해 이번 행사를 준비했다” 고 밝혔다. ‘강원도의회 생활정치 실천 연구회’는 도내의 지역 현안을 중심으로 날로 복잡다양해지고 있는 주민들의 행정수요에 부응하는 실효성 있는 정책을 개발하고, 주민들과 함께 생활 현장 속에서 체험하고 공감하면서 생활자치 구현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지난해 3월 구성된 도의원 연구모임이다.

▣ 강원도의회 사회적 경제발전연구회(회장 정재웅 의원)

- 강원도 사회적 경제 확산을 위한 정책실천 토론회 개최(2016. 5. 13.) -

강원도의회 사회적경제 발전연구회는 5월 13일 오전 10시30분 도의회 세미나실에서 ‘강원도 사회적경제 확산을 위한 정책실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강원도의회 사회적경제 발전 연구회와 강원도 사회적경제지원센터가 공동 주최한 한 것으로, 지난해 10월에 열린 ‘사회적경제 판로 활성화 토론회’에서 논의된 '사회적경제' 가치 재평가와 도내 '사회적경제' 정착 방안 토론의 연속선상에서 이루어진 것이다.

정재웅 연구회장은 토론회 인사말에서 “사회적경제의 가치와 필요성에 대한 인식은 점차 확대되어가고 있지만, '사회적경제'라는 생소한 개념에 대하여 객관적인 지표나 정책 등이 미흡한 상태이다.” 라고 말하며, “이번 토론회를 통해 정부 및 지자체, 유관기관 등이 사회적 경제 확산 및 구현을 위해 보다 적극적으로 고민하고 움직일 수 있게 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고 말했다.

토론회는 정재웅 연구회장의 ‘강원도 사회적경제활성화를 위한 지표개발 및 정책제언’이란 제목의 주제발표와 참석자들의 자유토론 순으로 진행되었고, 자유토론에서는 연구회 회원들과 강원도내 시・군 사회적경제 담당자들간의 도내 사회적 기업의 각종 현황과 향후 발전 전망 등에 대한 의견 교환 등이 이뤄졌다.

▣ 강원도의회 저출산 고령화 극복방안 연구회(회장 박윤미 의원)

- 우수 출산정책 벤치마킹, 해남군 현장방문 (2016. 5.30.~5.31.) -

강원도의회 저출산·고령화 극복방안 연구회는 5월 30일 전라남도 해남군 보건소와 공공산후조리원을 방문하여 우수 출산정책 벤치마킹 활동을 진행했다.

연구회가 현장 방문한 해남군은 '12년~'14년 3년 연속 합계출산율이 전국 1위를 기록했고, 특히 '14년 합계 출산율 2.43명을 기록하여 전국 평균보다 두 배가량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는 지역이다.

해남군이 전국 최고 수준의 출산율을 보이는 것은 해남군에서 시행하는 양육비 지원, 공공산후조리원 설립 등 수혜자 중심의 정책과 임산부 건강관리, 난임 해소 등 다양한 맞춤형 정책의 결과 위와 같은 출산율을 기록하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박윤미 연구회장은 "해남군의 우수한 출산정책을 벤치마킹하여 강원도 저출산 현상에 대한 대응방안을 모색하고자 이번 현장견학을 진행하게 되었다" 말하고 연구회 차원에서 현재 해남군에서 실시하고 있는 정책중 강원도에 적용할 수 있는 정책 등을 지속적으로 연구·개발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강원도의 합계출산율(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하는 평균 출생아 수)은 '14년 1.25명으로 인구감소를 방지하기 위한 최저 출산율인 2.30명 보다 1.05명 낮은 수준으로 저출산 현상이 점차 심해지고 있는 상황이다.